

황룡강 장륙습지 보호지역 지정 찬반 팽팽

토론회서 “도심속 국가대표 습지” vs “낙후지역 발전 필요” 광주시 “주민과 충분한 대화 거쳐 보호지역 지정 추진할 것”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광주시, 광산구청 등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 시의회, 광산구의회,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광산발전전략협의회, 주민 등을 포함한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호남대 앞에서 영산강 합류부

까지 3km에 달하는 황룡강 장륙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 간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수렴을 통해 도심속 환경보존과 주민이익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대 토목환경학과 정제평 교수가 진행을 맡고, 광주시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의 국가습지 지정 추진 경위,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김형욱 차장의 KTX 투자선도 지구 조성 추진 현황, 국립습지센터 이경

한 센터장의 장륙습지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환경단체·전문가와 주민 대표 토론으로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최희현 사무처장 등 국가습지지정 찬성하는 측에서는 “하천과 습지보존은 세계적인 추세로, 더 이상의 개발을 중단하고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시적인 자연환경이 그대로 간직된 장륙습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남기 송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국가습지 지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장륙교 확장공사(왕복 2차로→4차로), 황룡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장륙습지 생태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손색이 없다는 조사결과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륙습지는 광주시가 2017년 10월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정밀조사를 한 결과,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환경부에서 지정계획 수립을 유보한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국내 체류 3년까지 가능

앞으로 고려인 4세대도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 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4세대 이후 동포자녀도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아 방문취업비자(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현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이 만18세 이상 성인인되면 재외동포 제외 적용을 받아 강

제추방되거나, 3개월짜리 단기비자로 입·출입을 반복하는 등 생이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 3000여명이 모여사는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광주시(민)를 비롯한 국내 고려인지원단체 등이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해당 법률의 부당성을 알렸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4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구제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동포는 지난해 말 기준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이다.

이덕룡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은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항일 독립 투사 후손인 고려인동포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아준 광주시역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인구 새희망 프로젝트

도, 내달 25일까지 시군 공모

전남도가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젊은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젊은 세대들이 전담지역으로 와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9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군 공모에 나선다.

공모 분야는 청년 주거·생활공간 지원, 문화·창작·예술 지원, 청년창업 지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이다. 또 시군의 특성을 살린 인구 유입 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순천 공유로(路) 사업’과 같이 원도심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남도 도정혁신 워크숍'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자'를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열자”

전남도·시군·출연기관 간부 80여명 ‘도정혁신 워크숍’

전남도와 시군 간부 공무원, 도 출연기관 대표 80여명이 1박2일동안 하심탄화하게 의견을 나누며 올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25-26일 이틀간 나주시 다도면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19년 도정혁신 워크숍’을 열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전 대본 없는 즉문즉답 형태의 공감토크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셜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자치분권 전문가인 대통령 직

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담당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의에 나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출신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국가재정제도와 국고확보 전략”을 강연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특강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에서 서류로 보는 것보다 문제점이 더 잘 보인다”며 평소의 ‘현장 제일주의’ 철학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담당자부터 도지사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격의 없이 토론하자”며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갖고 ‘새로운 전남, 전라도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

성이면 예산이다”며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는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감과 소명의식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 공무원들은 “그 동안 도와 시·군이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관계였는데, 워크숍을 통해 하나의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출연기관의 한 대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지사의 개인사부터 도정운영 철학까지 직접 묻고 답하는 ‘공감토크’는 신선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개최한 ‘도정혁신 워크숍’을 매년 정례화하고, 프로그램도 내실화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 확대

전남도는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2019년 제1차 전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남대 서성규 교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성과, 올해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과 40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경차량 1041대 보급 ▲어린이집 등에 공기정정기 3057대, 공기정화장치 4320실 보급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차량 2부제 및 자동차 운행 제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 운영 단속 ▲전기자동차 등 1552대 보급 ▲노후 경유차 4865대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 청소차량 6대 구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99대 보급 등을 추진한다.

박봉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련이 있다”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천 경매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동산 매매

● 남악 신도시 ●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점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일부동산

☎ 010-3111-50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단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단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읍 율름·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정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생충동 온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평평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참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단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회령동 건물 단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를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단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핵심상권 단지 261㎡ 건평 1128㎡ 은행11억 매도 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인읍 1213㎡ 건평 694㎡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	광주교육대학교(197)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모집/과정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